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이광근 지음

컴퓨터 응용의 한계는?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과 본능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광근 교수가 쓴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는 컴퓨터과학에서 나온 원천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정보이론, 암호, 개인인증 등 컴퓨터과학이 보여주는 다양한 응용의 한계와 가능성이 정리돼 있다.

컴퓨터는 한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능능의 기계라고 부른다. 컴퓨터 덕분에 인간의 능력은 세 갈래로 확장하고 있는데, 지능의 확장과 본능의 확장 마지막으로 현실의 확장이 그것이다. 저자는 이 세 갈래로 대표되는 응용과 그 바탕에 흐르는 컴퓨터과학 원천 아이디어를 펼쳐 보여준다. <인사이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마흔 두 개의 초록
마종기 지음

낮선 땅 상실의 아픔 노래

인간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죽음이다. 마종기 시인은 오랜 세월 아버지(마해송·아동문학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있다. 또한 한국 현대무용의 선구자 어머니의 죽음 역시 시인에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마 시인은 오랫동안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다.(1965년 한일회담 반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번에 펴낸 신작 시집 '마흔 두 개의 초록'은 낮선 땅에서 상실의 아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겪어야 했던 시인의 심상이 담겨 있다. 시인은 "하늘의 맨살" 이후 여러 곳에 발표했던 시들을 모은 것이다. 만 5년이란 햇수가 쏙 긴 터울이긴 하지만 그 래도 게으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살았다는 안도감이 앞선다"며 발간 의미를 말한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함축·허실·조화·동정... 예술도 마음을 닦는 도구다

<含蓄> <虛實> <調和> <動靜>

인문정신으로 동양예술을 탐하다

주랑즈 지음



"한 그루 괴이한 나무, 추한 나무, 쓸데없는 오래된 나무를 장자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재목감이 못 되고' 쓸모없어서 타고난 수명을 다할 수 없다. 마르고 괴이하며 추한 것은 울창하지 않으며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과 들보로 쓸 만한 재목도 못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타고난 온전함을 얻고 도를 얻는다. 그러므로 장자는 처신에 대해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의 사이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소식이 이러한 괴이한 나무를 그려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장자의 이와 같은 인생의 지혜다. 그는 추한 것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괴이한 것에서 이치를 구하며, 터무니없는 것에서 평범한 도리를 구하고, 마르고 썩은 것에서 생명의 의

의를 추구하려 했다." (본문 중에서)

정나라 말의 사상이 왕국유는 예술의 경지를 유이지경(有我之境)과 무이지경(無我之境)으로 구분했다. "유이지경은 자아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물은 모두 자아의 색채를 띤다. 무이지경은 사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자아고 어느 것이 사물인지 모른다."

다시 말해 유이지경은 대상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이 인간의 감정을 억누를 것을 뜻한다. 반면 무이지경은 정신을 집중하고 관조한 탓에 의지와 욕망이 부지불식간에 사라짐을 말한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동양 예술은 작품 자체에 대한 "체함과 음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론적 체계와 논리적 개념에 앞서 체험과 감상, 이해와 인격 도야가 예술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동양 예술과 동양 미학의 정수를 우려한 문제로 풀어낸 책이 나왔다. 베이징대 철학과 주랑즈(朱良志) 교수가 펴낸 '인문정신으로 동양 예술을 탐하다'는 인문사상의 요체와 동양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법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문사철(文史哲)을 토대로 한 종합예술 안내서다.

동양 예술은 고유한 표현과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동양 미학도 나름의 개념과 이론 체계를 지닌다. 동양 미학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논리적



동양 예술은 고유한 표현과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논리를 초월한 직관과 관조를 중요시하는 동양사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진은 송나라 마린의 '충침빙초도'(왼쪽)와 마윈의 '설탄생로도'



동양 예술은 고유한 표현과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논리를 초월한 직관과 관조를 중요시하는 동양사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진은 송나라 마린의 '충침빙초도'(왼쪽)와 마윈의 '설탄생로도'

추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논리를 초월한 직관과 관조를 중요시하는 동양사상의 특성에 기인한다. 부연하면 이렇다.

"세 마디나 두 구절의 짧은 말 대부분은 지혜가 번득이고 한가로이 술잔을 기

울이는 가운데 종종 정곡을 찌른다. 이러한 이론은 예술을 논하는 것이자 인생을 논하는 것이고, 이론이자 예술이기도 하다."

저자는 동양 예술의 본질을 다음 열 가지 요소로 정리한다. <형신(形神), 동

정(動靜), 함축(含蓄), 이소견대(以小見大), 평담(平淡), 허실(虛實), 황한랭적(荒寒冷寂), 조화(調和), 묘오(妙悟), 사의(寫意)

각각의 요소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와 정신, 움직임과 고요함, 작음과 큼, 쓸모없음과 쓸모 있음, 텅 비고 가득 참, 황량하고 쓸쓸하고 차갑고 고요함, 깨달음과 지혜, 마음의 기탁."

저자는 동양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장르를 초월한다. 시, 소설, 그림, 서예, 원림, 건축, 음악 등 모든 예술을 아우른다. 그 뿐인가. 주역에서부터 불교, 유교 등 동양 사상도 포괄한다. 다채롭고 요묘한 동양 예술의 세계는 감칠맛 나는 문장, 해박한 지식과 맞춤형 독 특한 울림을 발한다.

언어 너머의 뜻과, 형상 너머의 정신이 따로 분리될 수 없는 이유다. 맛과 멋, 정신과 운치가 한데 깃든 인문의 바다를 향해하다 보면 예술은 기술이 아니라 '성령(性靈)을 함양하는 도구'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책의 중점은 구체적인 예술이론에 대해 추론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론과 구체적인 예술 사이에 통로를 내고, 생생한 예술 속에서 이론의 '유타'를 찾고, 예술과 인생 사이에 통로를 내어 예술 속에서 중국인 특유의 삶의 지혜를 찾게 하는 데 있다." <알마·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창업, 아이템 단순화 하고 돈보다 머리를 써라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
권터 팔틴지음

'인구론(인문계 졸업자 90%는 논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 그 뿐 아니라 일자리를 잡았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취직을 했어도 정작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순간 회사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퇴직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제활동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면 누구나 한번쯤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게 사실이다. 주변에서 슬하게 보이는 실패 사례를 봐왔기 때문이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던 권터 팔틴 교수는 직접 창업에 나섰다. 아이템도 사업영역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해외여행 중 우연히 흥차 산지에 비해 찾았이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최고급 차를 직수입해 통신 판매하는 '데 캠페인'이라는 회사를 차렸고 대박이 났다.

권터 팔틴 교수가 펴낸 '아이디어가 자본을 이긴다'는 새로운 모델로 수많은 성

공 사례를 다룬 유럽 창업 분야의 베스트 셀러다.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번역을 했다. 한국에서 독일 관련 특강 초청 강사 1순위로 꼽힐 만큼 '독일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창업이 가진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위라는 관점이 녹아 있다. 저자는 특히 창업을 하는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을 경계하라고 조언한다. 한마디로 사업을 단순화하여 콘텐츠가 명확해질 때까지 돈이 아닌 머리를 쓰라고 강조한다.

<한겨레출판·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맥주를 맛있게 즐길수 있는 안내서



크래프트 비어 펍 크롤
이기중 지음

맥주는 음식이자 여행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맥주를 맛보기 위해 세계를 누비는 '비어 헌터(Beer Hunter)' 전남대 이기중 교수가 국내 맥주 마니아들을 위한 서울 크래프트 비어 펍 안내서를 펴냈다.

'크래프트 비어 펍 크롤 : 크래프트 맥주를 맛있게 즐기는 서울 펍 크롤 가이드'를 제목으로 한 책은 저자가 1년

동안 찾아낸 '삼합(三合)'이 좋은 28곳의 펍을 소개한다. 펍 크롤(pub crawl)이란 하루 저녁에 여러 펍을 찾다니며 다양한 맥주를 즐기는 것을 말한다. 2009년 '유럽맥주전문지'를 펴냈던 저자는 우리나라에도 펍 크롤 문화가 생겨나기를 희망하며 책을 펴냈다.

책에 소개된 28곳의 펍은 한 마디로 '펍의 삼합'이 좋은 곳, 지인들이나 맥주 애호가에게 추천하고 싶은 펍이다. 흥대 연남동, 이태원, 강남, 강남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자세한 펍정보와 지도를 수록해 소개했다. 각 펍의 가게 정보와 오키의 맥주 지식과 맥주 철학, 저자의 펍 스케치와 총평까지 담겨 있다.

<즐거움상상·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 전 시공 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